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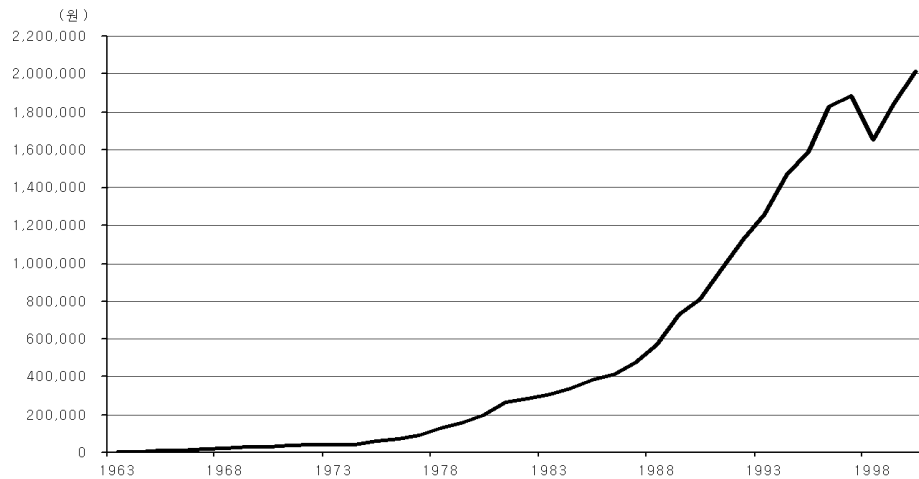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가계지출의 변화 (1960년대- 2000년)

- 가계지출 규모 및 구성
-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 대중교통 요금의 변화
- 생활요금 및 생필품 가격의 변화

가계지출 규모 및 구성

○ 가계지출 규모의 변화

서울시민의 가계지출 규모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1960년대와 비교하여 현격히 늘어났다. 연도별 현금가치 차이 때문에 가계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해당연도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지출규모는 1965년 가구당 1만원대에서 1978년 10만원대로 증가하였다. 가계지출 규모가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1992년이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되어 2000년 현재 가구당 가계지출 총액은 201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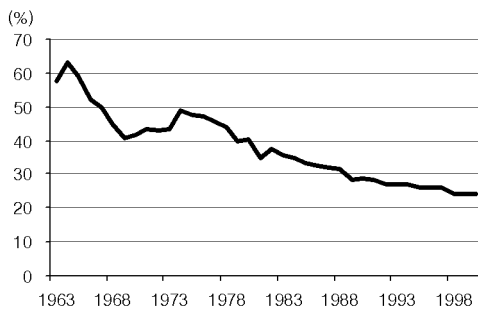
(자료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그림 1] 가계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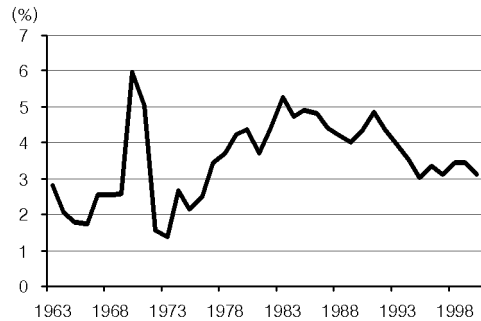
○ 항목별 가계지출 비중의 변화

연도별 현금가치의 차이로 인해 가계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계 지출이 어디에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림 2)부터 (그림 9)는 항목별 가계지출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들 규모의 변화를 통해 서울 시민의 평균적인 살림살이 그리고 이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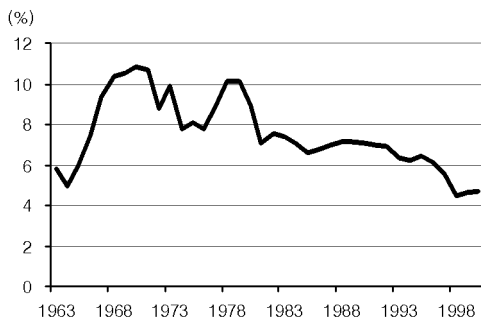
개별 항목 중에서 우선 **식료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1967년까지 식료품비가 전체 가계지출의 50% 이상 차지하여 엔겔지수가 높은 후진국형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식료품비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 비중은 1970년대 들어 약 40% 대, 1980년대에 들어서는 30% 대로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20% 대로 더욱 줄어 2000년 현재 24%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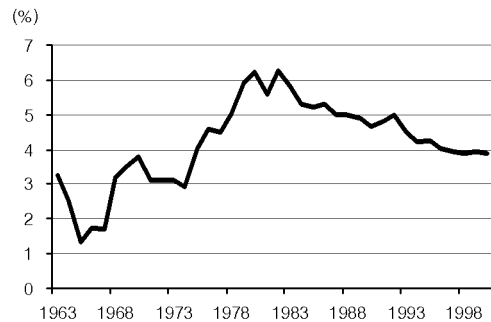
[그림 2] 식료품 비중 추이



[그림 3] 주거비 비중 추이



[그림 4] 피복신발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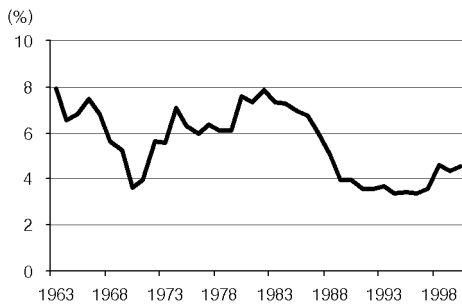


[그림 5] 보건의료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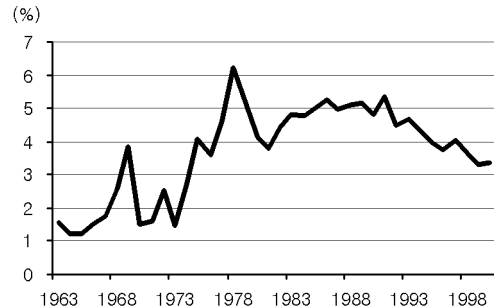
(자료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주거비 지출액**은 전 기간에 걸쳐 총지출의 5%이하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의 주거비에는 자가주택 구입비 또는 보증금 등은 포함하지 않고, 매월 지출되는 월세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과소평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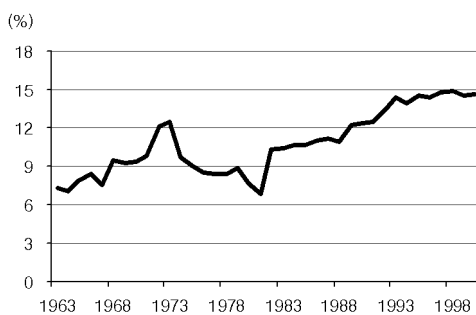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교육·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이다. **교육·교양오락비**는 1963년에 전체 소비의 7%에 불과하던 것이 1982년 10%로 늘어났고 1997년 이후 15%를 차지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 및 여가·문화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통·통신비**도 지출이 증가한 항목이다. 1963년 총지출 대비 4%이던 것이 1993년 10%로 늘어났으며 2000년 현재 13%까지 증가하였다. 교통·통신비의 지출은 전화보급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며, 1990년대 이후의 증가는 자가용 사용의 보편화, 이동전화의 보급, 그리고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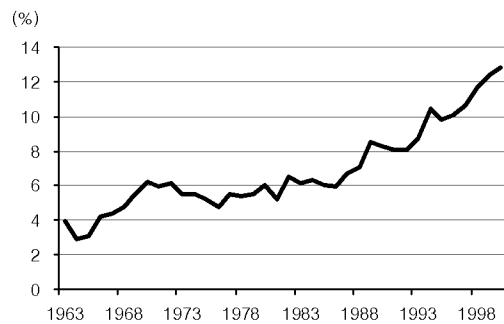
[그림 6] 광열수도비 비중 추이



[그림 7]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비중 추이



[그림 8] 교육 및 교양오락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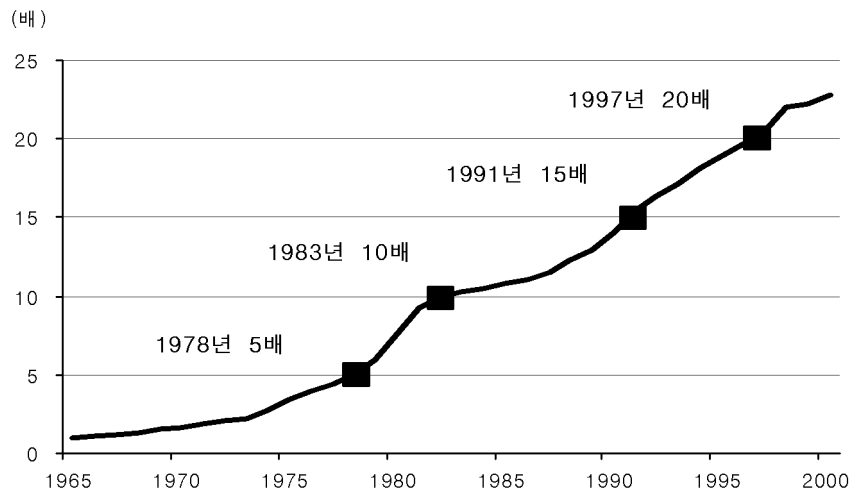
[그림 9] 교통통신비 비중 추이

기타소비지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특히 외식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광열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신발비 등 생활의 기초여건이 되는 항목의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그리고 외식비의 비중이 비교적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생활양식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점차 선진국화 되어가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 물가지수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라 서울시민이 체험한 물가지수도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다.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1965년도의 물가지수는 4.3으로서, 서울시의 물가지수는 1965년 대비 2000년 현재 23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3년만인 1978년에 5배 증가하였고, 1983년에 10배, 1991년에 15배, 그리고 1997년에 다시 20배로 증가하였다.



(자료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그림 10] 물가지수 상승 (1965년=1)

물가상승률이 가장 컸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이다. 이 시기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고, 1980년 다시 제2차 석유파동으로 기름값이 100% 인상된 시기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으로, 이 시기에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현상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다. 농산물 작황도 좋았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도 물가안정에 기여한 시기이다.

○ 품목별 물가 상승 추이

아래의 <표 1>은 품목별 물가상승 추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물가지수의 상승폭을 표현하였다. 품목별로는 식료품류의 2000년 현재 물가지수가 1965년 당시에 비해 27배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식료품 이외의 품목이 20배 증가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생활필수품인 식료품류의 높은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식료품 이외의 품목 가운데서는 교육비 부문의 물가상승폭이 가장 커서, 1975년 대비 2000년에 11배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와 광열·수도비가 8배, 교통통신비가 7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표 1> 2000년 기준 품목별 물가지수

연도	총지수	식료품	식료품 이외									
			계	주거비 주거비	광열 수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잡비
1965	1/23	1/27	1/20	NA	NA	NA	NA	NA	NA	NA	NA	NA
1970	1/13	1/16	1/11	NA	NA	NA	NA	NA	NA	NA	NA	NA
1975	1/7	1/7	1/6	1/8	1/8	1/4	1/5	1/5	1/11	1/3	1/7	1/5
1980	1/3	1/3	1/3	1/3	1/3	1/2	1/2	1/3	1/5	1/2	1/3	1/2
1985	1/2	1/2	1/2	1/2	1/2	1/2	1/2	1/2	1/3	1	1/2	1/2
1990	1/2	1/2	1/2	1	1/2	1	1	1/2	1/2	1	1/2	1/2
1995	1	1	1	1	1/2	1	1	1	1	1	1	1
2000	1	1	1	1	1	1	1	1	1	1	1	1

주) NA : Not Available

(자료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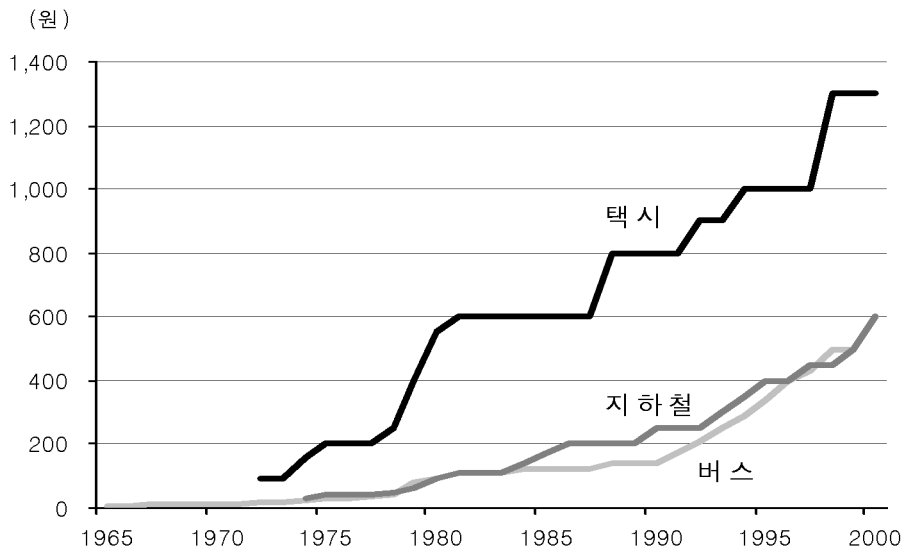
대중교통 요금의 변화

○ 대중교통요금(종합)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1970년 초반까지는 택시요금이 버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1970년대 말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기준으로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90원인데 비해 택시기본요금은 500원으로 약 5.6배나 차이가 났다.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1980년 중반까지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같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 중반부터 지하철 요금이 더 높아졌다. 이는 당시에 지하철 3, 4호선 건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후, 지하철 적자운영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2000년 즈음에는 좌석버스나 직행버스 등 다양한 버스 유형의 도입과 함께 버스요금이 다시 지하철 요금을 상회하게 되었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은 기본요금 800원으로 통일되었다.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통계로 본 서울교통」, 1988; 조선·동아일보 기사검색)

[그림 11] 대중교통 요금 추이

○ 지하철 요금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통계로 본 서울교통」, 1998)

서울에 지하철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때이며, 이때 기본구간 요금은 30원이었다. 이후 지하철의 기본구간 요금은 10~30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1981년에는 100원이 되었으며, 1986년에는 200원이 되었다. 그 후 인상폭은 50원 단위로 이루어져 계속 인상되었으며, 1993년 300원, 1995년 400원, 1999년 500원으로 책정되었다. 500원이던 요금은 1년만인 2000년에 100원이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요금은 운영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서, 1990년의 경우 1인당 평균운임은 운영원가의 56%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하철의 요금체계는 처음 기본구간 요금을 결정하고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다가 1985년부터 구역제로 바뀌어 기본구간은 1구간으로 하고, 1구간을 넘어서는 외곽지역은 2구간으로 하여 총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되고 있다. 1986년 이후 2구간의 요금은 1구간의 요금에 100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기본구간인 1구간 요금이 600이며, 초과구간인 2구간 요금은 700원이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구간제 요금체계가 폐지되고, 12km이내에 기본요금 800원(교통카드 기준)이 부과되고 초과 6k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요금제로 변경되었다.

○ 시내버스 요금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통계로 본 서울교통」, 1998)

원단위로 통일된 1965년 이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내버스 요금은 1965년 8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70년대에는 버스요금이 15원~80원으로서 100원 미만이었으며, 1980년대에도 200원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버스요금이 200원을 넘어선 것은 1992년 이후이며 그후 200원대, 300원대, 400원대를 거쳐 1998년 500원에 이르렀고, 2000년에는 6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어, 버스 요금이 마을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과 통합되었다. 기본요금 800원에, 환승시 기본 10km에 추가 5km 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가산되는 방식이다.

○ 택시 요금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서울특별시, 「통계로 본 서울교통」, 1998; 조선일보 기사 검색)

서울에 택시가 처음 소개된 것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택시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택시 요금 산정에 있어 기본구간이 2km가 된 것은 1949년 4월 1일 이후이다. 당시는 화폐개혁 전 이어서 현재의 '원'과는 다르지만 기본요금은 200원 이었다. 자료의 구득이 곤란하여 택시요금은 1972년부터 조사되었는데, 1972년 당시 기본요금은 90원 이었고, 그 후 8번의 요금인상을 거쳐 1980년에는 500원이 되었다. 1982년에는 기본요금 600원에 심야시간에 할증제가 시행되었다. 1982년 1월 6일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심야시간대 (00:00~04:00)의 운행이 요구되었고, 평상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교통 혼잡이 심해지면서 택시운전사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운행을 기피하게 되자 1985년부터는 운행거리 뿐 아니라 운행시간에 따라서도 요금이 증가하는 시간거리 병산제가 도입되었다. 1988년에는 중형택시가 도입되면서, 택시요금이 분리되었다. 1989년 7월, 소형택시의 기본요금은 700원,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800원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택시를 고급화하기 위하여 모범택시를 도입하고 중형택시의 요금도 꾸준히 인상되었다. 1994년 1,000원이던 기본요금은 1,3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01년에는 1,600원으로 인상되었다.

생활요금 및 생필품 가격의 변화

○ 공중전화 요금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한국통신 홈페이지)

공중전화 요금은 매우 완만한 변화를 보인다. 1970년 5원에서 시작하여 1977년 10원, 1982년 20원, 1994년 30원, 1995년 40원으로 올랐으며 다시 1998년 50원으로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70년의 5원에 비해 10배 증가한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동전화의 급속히 확산되어 공중전화의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중전화기의 보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 TV 시청 요금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의 시청료는 100원이었다. 이는 4~5년마다 100원씩 증가하다가, 1980년 800원으로 올랐으며, 이듬해인 1981년 2,500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1년에 시청료가 대폭 인상된 것은 이 때부터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TV 시청료는 2,500원 이후 동결되어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쌀가격

(자료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65년 물가총람」; 통계청, 「소비자물가연보 품목 및 품질규격집」)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인 쌀값의 변화는 시민생활의 안정에 주요한 요소이다. 쌀값의 실제 가격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자료에 의하면 1935년 쌀 80kg이 당시 가격으로 17.8圓, 현재 가격으로 0.0178원이다. 해방 이후인 1945년에도 쌀값은 현재가격으로 0.69원으로 저렴하였으나, 이듬해인 1946년 무려 459.6% 인상된 3.86원이었고, 한국전쟁 기간에 다시 크게 올라 500원대를 넘어섰다.

쌀값은 전쟁 직후 다소 내렸으나, 80kg을 기준으로 1955년 1천원을 넘어섰다. 한국 전쟁 후 점차 안정되던 쌀값은 경제개발시기인 1960년대 초 다시 20~50%대로 상승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 3천원, 1972년 1만원을 넘었다. 쌀값의 인상폭은 이후 지속되어 2002년 현재 20만원을 넘고 있다. 이는 쌀값이 많이 오른 1952년에 비해서 402배가 증가한 것이다.

쌀값 인상률이 가장 급격하게 나타난 것은 1980년 전후로 이 시기는 유가파동으로 대부분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던 시기이다. 쌀값 인상률은 1986년 이후 한자리수의 인상률을 보이다가 1996~1999년 사이 다시 두 자리수로 크게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근인 2002년에는 전년도 대비 0.7%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 연탄가격

(자료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1980년대 초반까지 서민들의 주요 연료원이었던 연탄, 소형탄의 1970년 당시 가정도 가격은 18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20원~85원 수준으로서 100원을 넘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 연탄의 가정도 가격은 100원대로 상승하여 1988년에는 195원까지 인상되었다. 연탄, 소형탄 가격은 1974년과 1980년 전후에 가장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 시기의 유류파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석유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생산원가의 상승요

인이 발생한 것과 동시에 비싼 석유 대신 무연탄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이후 연탄요금은 동결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석유나 가스 등이 무연탄을 대체하여 일반가정의 연료원으로 사용되면서 무연탄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탄, 소형탄 가격의 인상률은 공장도가, 도소매가, 가정도가 대체로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대체로 공장도가의 인상률에 비해 실제 가정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인상률이 낮아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자장면 가격

(자료출처: 조선일보기사검색;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소비자물가동향」, 1986; 통계청 홈페이지)

중국음식점의 대표적인 메뉴인 자장면은 1960년대 이래 일반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외식 메뉴로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장면 가격의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로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이전의 자장면 가격을 주요 신문들의 기사검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1963년에는 20~30원, 1968년에는 50원이었다. 1965년 시내버스 요금이 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3.7배 수준이다. 반면에 2000년 기준으로 자장면 값 3,000원은 시내버스 요금 600원의 5배이다. 1963~2000년 기간동안 쌀값은 3,010원에서 202,532원으로 약 67배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동안 자장면 값은 100~150배 인상되었다.

자장면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70년대 후반으로, 1976년에 138원으로 1963년 대비 5~7배 인상되어 연평균 28%씩 증가하였다. 자장면 값은 1980년에 다시 350원으로 올라 1976년 가격의 2.5배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1976~1980년간 매년 약 38.4%씩 증가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자장면 값은 700원 정도 이었으며, 1990년 상반기까지 자장면 값은 매년 20% 내외씩 인상되어 1991년 들어 1,400원에 이르렀다. 1993년에는 2,000원을 넘어섰고, 1995년 2,5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이후에는 가격변동이 거의 없이 매년 3% 수준의 인상률만을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3,000원대로 인상되었다.

○ 개봉극장 관람요금

(자료출처: 문화관광부, 「통계로 보는 문화산업」, 2000)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영은 1898년 미국인 이스트하우스가 남대문에서 상영한 것이었으며, 최초로 한국 무성영화가 상영된 것은 '의리적 구토'가 단성사에서 1919년 상영된 것이었다. 1935년에는 최초의 우리말 발성영화 '춘향전'이 상영되었고, 이듬해 1936년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상영되었다.

한국영화의 전성기라고 하는 1960년대 영화요금은 한국영화 55원, 외국영화 70원이었다. 영화요금은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다.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거의 매년 영화요금이 인상되었고, 인상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1979년으로 1978년 700원에서 1,200원으로 71.4% 인상되었다. 이후 영화요금은 매 2~4년마다 500원씩 인상되어 1981년에 2,000원이었던 한국영화 관람료는 1984년에는 2,500원, 1988년에는 3,500원이 되었다. 1990년에 4,000원이 되었던 관람료는 다시 세 차례 인상되어 1995년 6,000원이 되었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람료는 1990년에 동일하게 책정되는데, 1965년 외국영화는 70원, 한국영화는 65원으로 외국영화가 1.1배(최소치) 비쌌고, 1978년에는 외국영화가 1,200원, 한국영화가 700원으로 1.7배(최대치)의 차이가 났다. 한편 1973년부터는 영화요금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 담배 가격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동아일보 기사자료)

담배가격에 관한 자료는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 1949년 '화랑' 담배부터 확인되었다. 화랑담배는 1950년대 이래 3원에 판매되었고, 1963년 5원으로 인상된 후 다시 1973년 10원으로 인상되어 1974년까지 판매되었다. 1955년부터 서민층의 담배로 많은 소비가 있었던 '파랑새'는 1962년부터 1968년까지 6원에 판매되어, '화랑'보다 1원이 비쌌다. '진달래' 담배가 처음 선보인 것은 1957년으로서 당시 가격은 100환이었으며 1962년 화폐개혁에 따라 13원에 판매되었다. '파랑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진달래'보다 고급 담배로서 1958년 '아리랑'이 출시되었는데, 진달래 가격의 약 2배인 25원에 팔리다가 1967년 35원으로 인상된 후, 1973년까지 판매되었다. 1961년에 나온 최고급 담배는 '파고다'였으며, '아리랑'보다도 2배 비싼 50원 가격에 판매되었고 1972년까지 출시되었다. '파고다'와 동일한 가격의 고급담배인 '신탄진'이 나온 것은 1965년 이었으며 6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다가 다시 50원으로 환원되어 1974년까지 판매되었다. '신탄진'과 '파고다'보다 고급담배로서 가격이 두 배

에 이르는 '청자'는 1969년 100원에 출시되어 15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200원까지 인상된 후 1978년까지 판매되었다. '청자'가 최고급 담배로서 자리매김 하던 1970년대 초반, 이보다 비싼 '태양'과 '거북선'이 1974년 200원 가격에 출시되었다. '태양'과 '거북선'은 1976년 300원으로 인상되었고, 각각 1978년과 1979년에 45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즈음 1980년에 450원의 가격으로서 또 다른 고급담배인 '솔'이 출시되었다. 1987년에는 600원 짜리 '88라이트'가 출시되어 최고급 담배의 자리를 대치하였다. '88라이트'는 1994년 7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때 900원 짜리 '디스'가 출시됨으로서 최고급 담배의 위치가 갱신되었다. 그 이후 '88라이트'는 2000년 1,000원까지 인상되었으며, '디스'는 이미 1996년 1,000원으로 인상된 후, 2000년 1,100원, 그리고 2001년에는 1,300원으로 인상되었다.

새로운 담배의 개발은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건강에 해가 적은 고급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담배가 개발 판매될 때마다 담배가격이 100원에서 300원 정도 상승하였다. 반면에 같은 종류의 담배 가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새로운 종류가 개발 판매되면서 이전의 종류는 곧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담배 값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시내버스, 자장면, 극장요금 등 다른 품목의 가격과 비교해 보았다. 1968년 당시 담배 값은 최고급품을 기준으로 60원이었던 반면, 시내버스가 10원, 자장면이 50원, 극장요금이 130원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 담배 값은 자장면 한 그릇보다 비쌌고, 영화 한편을 보는 값의 약 절반 수준이다.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2000년에는 담배 값은 1,100원, 시내버스 600원, 자장면 3,000원, 극장요금 6,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동안 인상폭은 담배 값이 가장 낮아 1.8배 증가한 반면, 시내버스와 자장면은 60배, 극장요금은 46배 증가하였다.

○ 각급학교 수업료

(자료출처: 한국물가정보, 「물가총람」, 1995)

각급 학교의 수업료는 계속 증가하였다. 1970년에 중학교의 1년간 수업료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20,700원이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1979년에 10만원 선을 넘어섰으며, 1985년에 다시 20만원을 넘었다. 1995년 현재 약 50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1970년 당시 수업료에 비해 24.2배 늘어난 것이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중학교보다 다소 높다. 1970년 27,320원으로 중학교 수업료의 1.3배에 이른다.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상승률은 중학교 수업료에 비해 더욱 높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료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70년 당시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 고등학교 수업료는 27,320원이었으나 1995년에는 883,200원으로 32.3배 늘어나 중학교 수업료가 24.2배 늘어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수업료와의 격차도 1970년 1.3배에서 1995년 1.8배로 늘어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대학의 수업료이다. 특히 자연계 대학의 수업료가 각급 학교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 인문계 대학의 수업료가 1970년에는 33,000원이었던 것이 1995년 1,849,000원으로 늘어나 56배 인상되었고, 자연계 대학의 경우 1970년에 45,400원이었던 것이 1995년 2,828,000원이 되어 62.3배 인상되었다.

김광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045
kjkim@sdi.re.kr